

韓國 大學入試制度의 現況과 改善方向

黃 禎 奎

(교육학과)

I. 序 論

한국에서 대학입시제도 및 선발방법 만큼 교육계에서나 일반인들에게 예민한 관심과 비판의 대상이 되어온 제도도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피교육자를 선발하기 위한 입시제도가 대학내의 교육적 행사로 끝나지 않고 언제나 世論과 사회의 銳角의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는 것은 그만큼 대학입시가 학생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가정, 사회, 그리고 대학 자체의 존립유지에 주는 의의와 비중이 크기 때문이라 짐작된다.

대학입시가 과열되면서 그것을 위한 개인적 노력, 재화, 시간의 투입도 막대하지만,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사회적, 국가적 재화 및 노력의 투입도 막대하다. 이같이 우리나라에서 대학입시에 대한 관심이 과열되어 왔고, 또한 계속 그러하리라는 데 대한 형이상학적 이유는 여러가지로 들 수 있겠지만 그 형이하학적 이유는 대학입시에서 합격하는 것이 한 개인의 上向의 階層移動을 가장 보장받는 최선의 길, 최고의 기쁨길이라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데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학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대학 중에서도 世評이 좋은 대학이나 학과에 들어가는 것이 출세하고, 대접받고, 돈벌고, 잘 살 수 있는 수단이라는 한국인의 뿌리깊은 지위상승에 대한 의식구조와 그 현실의 확인에 있다. 그러기에 대학을 교육받고, 인격을 도야하며, 자아실현을 위한 기회나 場으로서가 아니라 계층상향이동에 필요한 약속어음을 마련하기 위한 장소로 생각하는 의식이 은연중 모든 행동을 지배하고 사고를 지배한다.

이 논고에서는 ① 한국의 대학 입시제도가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가하는 발전과정을 간략히 살펴보고, ② '94학년도부터 실시하기로 결정된 內申成績(40% 이상 반영)-大學修學能力試驗-大學別 考查로 구성된 입시제도의 구조와 그 특징을 概觀하고, ③ 대학 입시제도에 관련하여 고려해 보아야 할 논리를 제기하고 ④ 개선의 방향을 시사하는 형태로 제시한다.

II. 韓國의 大學入試制度的 變遷過程

韓國의 大學入試제도 變遷과정을 필자의 개인적 견해를 가하거나 특수한 분석의 틀을 고려하지 않고, 변천되어 온 과정을 시대별로 나누어 사실적, 객관적으로 기술한다(朴道淳 외, 1989).

1. 大學別 단독시험시기(1945-1953)

1945-1953년은 大學別 단독시험제로 大學이 주체적·자율적으로 大學교육 적격자를 선발한 시기였다. 해방이후 1948년 정부가 수립되자 大學입학시험에 관련된 사항은 大學당국에 일임하는 방침을 세우는 한편, 大學당국끼리 협정형식으로 시험과목, 시험시기 등을 정하도록 하였다. 당시 大學교육수요의 부족으로 정원이 미달되어 병역상의 징집·소집 유보의 특혜를 주게 되었으나 이것이 大學에 부정입학의 문제를 유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결국 부정입학 등으로 大學입학시험의 자율성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여 大學입학시험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大學입학 전형방법은 大學별로 출제한 필기고사 형태의 선발시험에서 얻은 총점에 따라 입학사정을 하였고, 시험과목 필수과목 4과목(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 선택과목 1과목 이상(대개 실업과목에 치중함)을 부과하였다.

2. 大學입학국가연합고사, 본고사 병행시기(1954)

1954년 大學입학 국가연합고사를 도입하여 大學別 고사와 병행 실시하였다. 즉, 大學교육 적격자에게 입학자격을 부여하여 大學의 권위와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大學입학시험 제도의 공공성을 살리기 위하여 大學간 협의결과로 국가연합고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연합고사와 본고사가 수험생에게 이중부담을 주고, 여학생과 재대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등의 이유로 효력을 보지 못하고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이같은 大學입시제도가 도입된 배경은 첫째, 大學생의 징집·소집 보류 특전으로 부정입학·병역기피수단으로 大學을 이용했다는 것, 둘째, 大學의 재정확보책으로 정원초과모집의 현상이 빚어져 大學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

전형방법은 大學입학국가연합고사(자격고사) 합격후 大學別 시험(본고사)의 총점에 따라 입학사정을 하였다. 시험과목은 국가연합고사에서는 필수과목으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생활

과 선택과목으로 과학 혹은 실업을 택하게 했으며, 대학별 고사에서는 필수과목으로 국어, 영어, 수학을 선택과목으로 1과목을 학생이 선택하게 했다.

3. 대학별 단독시험시기(1955-1961)

1955-1961년에는 국가연합고사가 실효성없이 폐기되고 다시 대학별 유시험, 무시험이 병행되었다. 즉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대학교육 적격자를 선발한다는 원칙 아래 대학별 무시험 전형을 실시하거나 또는 입학시험을 대학단독으로 실시하는 다양한 대학입학시험 양상이 전개되었다. 특히 무시험 전형에서 최초로 내신제가 활용되어 전인적 평가를 중시하고 고등학교 교육정상화에 기여하였지만 대학간의 격차심화와 대학교육의 질저하 문제가 제기되었다.

입학사정 방법은 다양하였다. ① 대학별 선발시험에 따라 입학사정을 하는 대학, ② 고교 내신 성적(1958년 이후)을 기초로 정원의 10%는 내신성적으로 선발하고 정원의 90%는 대학별고사(70%)+고교내신성적(30%)를 반영하는 대학, ③ 상관회귀방법에 의한 추정 방법에 따라 사정(연대)을 하는 대학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시험과목은 1955-1957연도는 필수과목(4과목이상)으로 국어, 영어, 사회, 수학, 과학을 그리고 대학에서 지정하는 선택과목 1과목을 부과하였으나, 1958-1961년 사이에는 필수과목으로만 전형하고 2과목은 매년 변경실시하였다.

4.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사시기(1962-1963)

1962년에는 대학의 본고사를 자격고사겸 선발고사의 성격을 띤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사'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1963년에는 이 국가고사를 자격고사로만 돌리고 대학별본고사로 학생을 선발하게 하였다.

이러한 제도 변화를 초래한 상황배경은 ① 5.16이후 고등교육기관의 정비와 질적향상을 위해 부정입학자 방지, ② 수학능력 적격자 선발, ③ 고교교육의 정상화, ④ 인문 중시 풍토의 타파와 실업교육 진흥, ⑤ 지방대학 육성 등을 위한 목적이 배경에 깔려 있었다. 그러나 국가고사의 근본목적이 부정입학과 무자격시험의 입학을 막고 대학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의도였으나 오히려 대학입학시험의 주체가 되어야 할 대학이 자율성을 침해 당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전형방법은 1962년도에는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사와 대학별 실기고사(체능고사)로 했으며 1963년에는 대학입학자격국가고사와 대학별 선발시험으로 입학생을 사정하였다. 특징은 특별전형으로 실업 동일계 대학진학자(학교장 추천을 받은자)를 대학정원의 30% 선발하였고, 예

체능계는 무시험 서류 전형으로, 여자는 사범계 및 실업계 진학시 혜택을 부여하였다.

시험과목은 1962년도에는 필수과목이 6개(국어I, 사회, 수학I, 과학, 영어, 실업(가정)였
고 계열별로 1개의 선택과목을 택하게 하였으며, 1963년도에는 필수과목 6개만으로 실시하였
다.

5. 대학별 단독시험시기(1964-1968)

1964-1968년에는 대학입학시험에 있어서 대학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대학별 단독
시험체로 전환하게 되었다. 즉, 정부에서는 대학입학시험의 공공성 차원에서 최소한의 지침을
마련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대학교육 적격자를 선발하도록 하였다.

전형방법은 각 대학별로 주관식, 객관식을 혼용한 필답고사 형태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대
학에 따라서는 적성검사 및 내신성적을 반영하는 방법도 채택하였다.

그러나 대학별 단독시험방법은 입시관리의 불철저와 일부 사립대학의 정원 초과모집으로 인
하여 대학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일류대학 집중지원현상이 나타나 대학별 격차가 더욱 심화됨
으로 다시 대학입학시험의 공공성 문제가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각 대학이 다투어 입
학과목을 축소(3-4개 과목)하므로써 고교교육의 비정상화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빚었다.

6. 대학입학예비고사, 본고사 병행시기(1969-1980)

1969-1980년에는 대학교육의 적격자를 선발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동
시에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실시하는 ‘대학입학 예비고사’
(1969. 대학입학 예비고사령 공포)와 대학별로 실시하는 본고사가 복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기간동안 대학입학시험제도는 대체로 대학에 학생선발의 자율권을 부여하면서, 대학입학시
험의 자율성에서 야기되는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대학입학예비고사를 통하여 국가
가 적정 수준으로 개입함으로써 대학입학시험의 공공성도 보장하였다.

전형방법은 대학입학예비고사 성적과 고교내신성적(1973년도 이후) 그리고 대학별 본고사
성적으로 전형하였다. 대학입학예비고사는 초기에는 예비고사 합격자만이 대학별 본고사에 응
시자격을 주는 자격고사 형태였으나 후기에는 대학진학의 예비시험으로 전환되었다.

대학입학예비고사는 고교교육과정은 전부 망라하는 四肢選多型 문항형태의 시험이었으며,
대학별 본고사는 대학마다 다양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도 예비고사와 대학본고사 실시에 따른 학생의 시험준비의 이중부담, 시험준
비 위주의 고교교육이라는 문제를 지니게 되었고,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와 고등학교 평준화정

책의 시행 등 중등교육이 보편화됨에 따라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반면 대학정원은 크게 늘어나지 않음으로써 과열입시 경쟁이 유발되어 이로 인한 대학입학시험의 공공성문제가 크게 대두되었다.

7. 대학입학예비고사, 고교내신제 병행시기(1981)

1979년부터 대학입학 예비고사의 적용대상이 전문대학까지 포함하게 되자 대학정원의 급격한 팽창을 가져와 대학입학예비고사는 총응시자의 약 90%가 합격하기에 이르게 되어 합격선이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또한 과열과외, 예비고사와 본고사의 이중부담, 고교생활지도의 문제점 등이 생겨 일부에서 본고사 폐지 및 대학입학예비고사의 합격선 폐지를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1980년 7.30 교육개혁조치가 취하여지게 되었다. 이 조치는 고교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대입전형방법의 개선을 목표로 하여 당시 대학입학을 목표로 벌여졌던 과열과외 현상을 척결하기 위하여 대학입학시험의 전형방법으로 각 대학별로 실시하던 본고사를 없애고 고교내신성적과 예비고사 성적에 의하여 신입생을 선발하게 하고 있다. 예비고사의 합격선은 1982학년도에 가서 폐지되었다. 1981학년도 신입생선발은 대학입학 예비고사 성적(50%이상)과 고교내신성적(20%이상)만으로 이루어졌다. 이 학년도에서는 본고사폐지로 격심한 혼란이 나타났으며 정원미달과 과열경쟁에 의한 탈락과 같은 여러가지 기현상들이 일어났다.

8. 대학입학학력고사, 고교내신 병행시기(1982~1985)

이 시기에서는 고등학교 내신성적 반영비율의 확대, 대학입학예비고사를 대학입학학력고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합격선을 폐지, 그리고 1981학년도 입시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하는 것 등을 특징으로 한다. 특징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① 대학입학 학력고사성적 50%이상과 고교내신성적 30% 이상에 의하여 신입생 선발, ② 합격선의 폐지, ③ 실업계 동계진학, ④ 산업체근로자에 대한 특혜조치는 종전과 같이 존속, 그리고 ⑤ 대학입학학력고사 문제와 정답의 공개 등을 들 수 있다.

전형방법은 전형주자료로서 ① 대학입학 학력고사, ② 고교내신성적, ③ 실기고사(예체능계)를 전형보조자료로 면접 및 신체검사를 활용하였다.

대학입학 학력고사는 1982-1983년도에는 14개 교과목, 1984년도에는 15개 교과목, 1985년도에는 인문계 16개, 자연계 15개 과목을 선다형으로 이해력 및 적용력을 측정하도록 출제하였다.

내신성적은 1982년도에는 고교 2학년 및 3학년 성적에 의해 산출하였으나 1983년이후에는

고교 1, 2, 3학년 성적에 의해 산출하였다.

이 제도 채택이후 ① 고등정신력 측정의 미흡, ② 내신성적에 대한 불신 증가, ③ 눈치경쟁 유발, ④ 적성교육 무시, ⑤ 졸업정원제로 인한 강제탈락 문제 등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9. 대학입학학력고사, 고교내신 및 논술고사 병행시기(1986-1987)

대학입학 학력고사 성적과 내신성적의 기계적 합산에 따라 얻는 총점만에 의한 전형제도는 대학의 학생선발권 위축, '눈치작전', '배짱지원' 등의 비교육적 현상과 같은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야기시키게 되었다. 동시에 대학입학 학력고사는 객관식 일변도의 출제방법때문에 암기력만을 평가할 뿐 고차원의 정신능력을 평가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상당히 강력하게 제기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비판을 수렴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대학입학 학력고사 고교내신성적 이외에 고차원의 사고능력을 평가하는 탈교과적 범교과적 성격의 논술식 시험을 대학별 고사로 출제하도록 하였다.

이 시기에 특별한 변화는 대학입학 학력고사의 교과목이 1987년에 9개과목(필수 5, 선택 4)으로 축소되었고, 선택과목 중 제 2 외국어와 실업을 통합하였다는 점이다. 새로이 도입된 논술고사는 그 기능이 미흡하다는 여론에 의해 2년으로 단명에 그쳤다.

10. 대학입학학력고사, 내신성적 및 면접 병행시기(1988-)

1988학년도부터 시행된 대학입학 시험제도 개선의 기본 골격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로 입시성적의 평가는 대학입학학력고사 성적, 고교내신성적, 면접고사 성적의 3요소를 반영하도록 하며 2년제 시행되어온 대학별 논술고사는 폐지한다.

특히 고교내신성적은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기타 요소의 반영률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둘째로 대학지원 방법은 선지원 후시험으로 한다. 셋째로 대입학력고사의 출제는 중앙교육평가원이 하며 고사과목을 현재와 같이 9과목으로 하되, 30% 내외에서 주관식 출제를 한다. 선택과목은 지원자가 대학지원시 선택하지만 실업 및 제 2 외국어 과목지정은 대학에서 한다. 넷째로 고사의 실시, 채점, 결과처리 등은 각 대학이 책임관리하되 10% 이내에서 과목별 가중치를 주는 것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대학입시제도 개선책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불러 일으킨 요소는 선지원 후시험이라는 지원 방식의 변경과 주관식 문제의 출제라는 학력검사의 성격 변화라고 볼 수 있다. 그 외에 면접고사 성적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점이라든가, 실업 및 제 2 외국어 교과목의 지정을 대학이 할 수 있도록 한 점, 그리고 과목별 가중치를 줄 수 있도록 한 점 등은 새로운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전형방법은 ① 대학입학학력고사, ② 고교내신성적, ③ 면접고사, ④ 실기시험(예 체능계)을 주된 전형자료로 하면서, ⑤ 신체검사결과를 보조자료로 이용하고 있고 입학 사정방법은 선지원 후시험제를 실시하였으며, 일반계는 [학력고사 성적+내신성적(30%이상 의무적으로 반영)+면접고사 성적] 으로 하며 예·체능계는 여기에 실기고사를 추가한다.

대학입학학력고사의 시험과목은 9개(필수5, 선택4)이며, 객관식 문항 70%와 주관식 문항 30%의 비율로 출제하되, 학력고사의 출제 및 인쇄는 중앙교육 평가원에서 담당하고 고사의 실시 채점 사정 발표는 각 대학별로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 제도는 선지원·후시험 방법을 채택하므로써 접수창구의 혼란을 해결하였고, 비교적 학생들의 적성에 따른 소신지원을 가능케 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내신성적 평생제의 문제, 대학별 학력고사 채점·사정에서의 부정입학 문제, 학력고사 3회 출제(전기, 후기, 전문대)등에 따른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1993학년도를 마지막으로 소멸될 상황이며 1994학년도부터는 새로운 대학입시제도가 채택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제시한 대학입시제도의 변천을 표로 제시한 것을 부록에 참고자료로 제시하였다.

III. '94학년도 大學入試制度의 概要

1. 배 경

위에서 살펴본 대학입시 제도의 변천과정을 보면 크게 보아 1980년의 소위 '7.30 교육개혁'에 따라 1981학년도부터 시행된 새로운 입시제도를 그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 이후 몇차례 부분적인 수정과 보완이 있었으나, 대학입학 학력고사와 고등학교 내신성적을 주 전형자료로 하는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어오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된지 10년이 가까워 오면서 현행입시제도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대학입시제도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는 원인이나 요인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그 핵심을 이루는 것은 그 동안의 입시제도가 교육의 본질적 차원에서 다루어졌다기보다 교육외적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특히 대학입시의 주체가 되어야 할 대학은 학생선발의 권한과 자율성을 크게 제한당한 상태였고, 고등학교 교육은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상실한 채 대학입시에 종속화되었고, 수험생이나 학부모는 입시에 따르는

과중한 정신적, 물질적 부담의 희생물이 되었다.

2. 교육개혁심의회 의 대학입시제도 구상골격

이같은 상황 속에서 1987년 '교육개혁심의회'는 최종보고서 II '教育改革綜合構想' 속에서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구상을 제시하면서 1990년대 초반까지 객관식 중심의 학력고사 부분은 '大學教育適性試驗'으로 발전시키고, 주관식 중심의 학력고사 부분은 '대학별 평가'로 발전시키며, 고교내신성적은 현행 비율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되 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하고, 반영되는 내용을 확대하여 행동발달상황, 특별활동도 내신성적에 반영할 수 있게 한다고 제안하였다.

3. '94학년도 대학입시제도

'94학년도에 시행될 대학입시제도는 교육부의 연구위촉을 받은 대학입시제도 연구위원회(박도순 등)가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여론수렴 및 추수연구를 토대로 약간의 수정을 가한 후 1991년 3월에 '대학입학시험제도 개선안'(교육부)으로 발표되었다. 현재 채택된 '94학년도 입시제도의 기본 골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전제조건들

1) 개선안의 전제조건

-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 기여
- 대학의 자율성과 다양성 신장

2) 기본 골격 선정조건

- 대학교육의 적격자 선발
- 連繫性의 원칙→내신성적(고등학교)
- 公共性의 원칙→대학수학능력시험(국가)
- 自律性(多樣性)의 원칙→대학별고사(대학)

(2) 改善案의 基本構造

—大學入試는 原則的으로 大學自律에 一任함—

개선안의 기본구조

* 학생선발의 기본자료

고등학교 내신성적 (필수사항)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선택적사항)	대학별고사성적 (선택적사항)
---------------------	-----------------------	--------------------

- 반드시 반영해야 할 사항
 - 고등학교 내신성적은 필수적으로 40%이상 반영
- 대학이 자유롭게 결정할 사항
 -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채택여부 · 반영비율 · 반영방법
 - 대학별고사의 실시여부 · 반영비율
- 학생이 선택할 사항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학생이 희망에 따라 1회 또는 2회 선택적으로 응시 할 수 있으며, 학생은 지원하는 대학이 요구할 경우 그 중 좋은 성적을 대학에 제출
- 적용시기: 94학년도 신입생 선발시 부터 시행
(전문대학도 희망시에는 학생선발자료로 사용할 수 있음)

* 전형자료별 반영비율 · 대학별고사 과목은 가능한 새 제도 시행 2년전에 각 대학별로 발표

(3) 학생선발 유형

대학이 선택할 수 있는 입시유형

- 제1유형: 고등학교 내신성적만으로 선발
- 제2유형: 고등학교 내신성적+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 제3유형: 고등학교 내신성적+대학별고사성적
- 제4유형: 고등학교 내신성적+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대학별고사성적

(4) 細部 改善內容

1) 고등학교 내신성적

㉞ 개선목적

- 내신성적의 실질적 반영비율을 높혀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을 예방하고
- 고등학교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함

㉟ 실질반영율의 상향조정

- 반영비율 조정: 현행 30%----40%
- 내신등급 조정 : 현행 10등급----15등급
- 실질반영율 조정 : 현행 4.9%---10% 수준

㉔ 평가영역과 반영방법의 개선

• 평가영역

현행『교과성적』과『출석성적』이외에

『특별활동·행동발달·교내외봉사활동 성적』까지 평가하여 반영함

• 반영방법

현행: 교과성적 90%+출석성적 10%

개선: 교과성적 80%+출석성적 10%+

『특별활동·행동발달·교내외 봉사활동 성적』 10%

2) 대학수학능력시험

㉕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개념과 시행의 필요성

• 개념: 통합교과적이고 탈 교과서적으로 고등정신능력을 측정

• 필요성

•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학능력을 측정-대학교육적격자 선발

• 암기위주 교육에서 탈피-고교교육에 미치는 입시영향 최소화

• 학생선발의 공공성과 객관성이 높은 자료 제공

㉖ 시험영역

—대학교육수학에 필요한 언어, 수리·탐구, 외국어(영어)영역—

• 언어영역

• 사실적·추론적·비판적 언어능력을 측정

• 국어교과 뿐만 아니라 사회, 과학 등 다양한 교과영역에서 출제

• 수리·탐구역역

• 주어진 자료에 원리와 방법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등 수리·탐구
능력을 측정

• 수학교과 뿐만 아니라 사회, 과학 등 다양한 교과영역에서 출제

• 외국어(영어)영역

• 사실적·추론적·비판적 영어능력을 측정

• 영어가 대학교육에 필수적이라는 현실을 반영한 학력고사임

㉗ 출제 및 시험관리(국가관리)

• 출제 및 채점: 중앙교육평가원

• 시행 및 관리: 중앙교육평가원, 시·도교육청

- 출제 형식 : 객관식 출제

㉔ 시험 실시 회수

- 학생은 희망에 따라 3학년 재학 중에 1회 또는 2회 응시할 수 있음
- 학생은 그 중에서 좋은 성적을 대학에 제출할 수 있음
- 앞으로 국가의 시험관리능력과 출제 문항의 축적 등이 충분한 수준에 이르면 시험회수를 더 늘릴 수 있음.

㉕ 고득점자의 특별전형

- 고득점자의 재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 희망하는 대학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고득점자를 일정 범위내에서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음.

㉖ 영역별 가중치 적용

- 대학의 특성화 다양화를 기하기 위하여 계열별 학과별로 특정영역의 성적에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음.

3) 대학별 고사

㉗ 고사의 성격과 시행의 필요성

- 성격: 대학의 특성 또는 계열별·학과별 특성상 별도의 수학능력을 측정할 필요가 있을 때 대학별로 시행하는 고사임
- 필요성: 대학의 학생 선발권 확대
계열별·학과별 특수성 반영

㉘ 시험과목과 출제내용

- 시험과목
 - 계열별·학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3 과목 이내에서 대학이 결정
- 출제내용
 - 고등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특별히 고려해야 함
 -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준거로 하여 사고력 판단력 탐구능력등 고등정신 능력을 주관식 위주로 측정

㉙ 실기고사 및 실험고사

- 실기고사 : 음악·미술·체육 등 실기가 중요시되는 학과에서 실시
- 실험고사 : 과학 등 실험 실습이 중요시되는 학과에서 실시할 수 있음

• 고사의 종목과 시행방법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 시행하되 실기고사의 경우 91.2.28자 교육부의 발표 (예술계 입시제도개선)에 따라야 함

㉔ 면접·구술고사·신체검사

- 기본원칙: 대학이 자율적 결정·시행
- 실시·활용방법

- 신체검사는 대학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불합격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음
- 면접·구술고사는 합격·불합격의 자료로만 활용하거나 총점의 10% 내에서 입시사정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사범계대학(사범계학과 포함)은 면접(10%이내),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10%이내)를 필수적으로 반영함.

(4) 특별전형

㉕ 특기자 영역 확대 및 학력기준 설정

- 현행 예·체능계 특기자 이외에 문학·어학·수학·과학 등 특수재능 보유자까지 확대
- 모든 특기자는 대학별로 정하는 학력기준에 도달하여야 함
- 특기자 선정기준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입학인원은 정원내로 함

㉖ 교포 및 외교관등 자녀의 정원의 입학

입학인원은 정원의외로 하되 학년별 입학인원의 2%범위내로 함.

㉗ 산업체 근무자 특별전형

고등학교 졸업후 2년 이상 산업체에 근무하는 자는 야간학과 정원의 50%이상을 (현행 20%이내)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음

IV. 고려되어야 할 論理

우리나라의 大學入試制度가 1969년에 '대학입학 예비고사' 라는 국가고사 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그 이후 입시 제도가 여러가지 형태의 구조적 골격, 내용과 방법에 변천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게 된 배경에는 그 시기시기마다 발생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적 차원의 고려, 社會的 문제의 수렴이라는 어려운 상황 타개를 위한 노력의 표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大學入試는 어차피 고교 졸업생들을 모두 대학에 입학시킬 수 없는 조건 속에서 누군가를 선택하고, 누군가는 떨어뜨려야 하는 갈등 기능을 大前提로 하고 있다. 대학입시는 대학에서 수학하는 데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여 입학 적격자를 가려내는 '選拔的 機能'과 동시에 교육현장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도록 지원하는 '教育的 機能'을 수행해야 한다는 이중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選拔的 機能은 학생의 능력이나 자질을 가능한한 타당하고 예리하게 변별함으로써 선발에서의 예측능률, 예측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이 최대의 標的인 반면, 教育的 機能은 모든 고교생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교육목적, 내용을 충실히 성취하도록 하려는 것을 최대의 표적으로 삼는다. 따라서 변별, 차별, 분화, 등급화를 최우선의 목표로 삼는 선발기능과 교육목표의 달성, 이에 따른 학생능력의 동질화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는 교육적 기능 사이에는 언제나 잠재적 갈등과 긴장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만약 이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입시정책이 있다면 그것은 神話와 現實을 접목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

大學入試制度는 이 두가지 기능 사이에 적절한 수준의 긴장된 조화를 이루려는 제도적 표현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그동안 이를 위해 대입학력고사, 내신제도, 대학의 독자적 선발 자율권이라는 게 가지의 제도적 장치가 함께 존치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大入學力考查가 국민적 이해와 관심의 제도적 표현이라면, 內申制度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이라는 교육적 기능을 발효시킨 제도적 표현이며, 大學의 독자적 선택과목 결정이나 加重值 적용, 채점과 査定 方法의 결정 등은 대학의 選拔 自律權을 발효시킨 제도적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제도적 표현은 동시에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를 그 밑에 깔고 있다고 해석된다. 大入學力考查는 학생 각자가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하므로서 동일한 尺度위에서 그 능력, 업적, 성취, 성적의 순위를 결정하려는 '自由'의 개념이 그 근간이 되어 있고, 이에 반해서 內申制度는 학생이 어느 지역에서 수학했건, 어느 학교에서 수학했건 그러한 歸屬變數에 관계없이 동일한 준거 위에서 같은 評價를 부여하려는 '平等'의 개념을 실현하려는 제도적 표현이며, 大學의 독자적 채점, 사정제도의 도입은 대학이 마땅히 가져야 할 獨立性과 自律性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기실 이 세 가지 理念的 가치는 어느 한 쪽을 강조하면 다른 한 쪽은 위축되는 逆函數의 관계를 갖는 성질이라는 데 그 조화점을 찾기 힘든 원인이 도사리고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이 중에서도 대학의 自律權·獨立權이 대학입시 제도에서 경시되거나 배제되어온 경향이 짙다는 데 대한 대학인의 共感帶 의식이 깊었고, 그러기 때문에 언제나 대학입시 제도에 관한한 대학인의 저항과 거부감을 촉발했던 것도 사실이다.

V. 무엇을 노력야 하는가: 改善의 方向

대학입시제도가 근원적으로 변화되고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곳곳에서 들려온다. 그러나 진작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 것인가라는 논의에 초점을 맞추면 그 의견은 각양각색일 뿐 아니라 상당한 부분의 의견은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경우도 많다.

대학입시제도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고 있는 논의를 보면 교육이 지향해야 할 순수한 원리에 입각하여 입시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비교적 원리론적 시각과 입시제도를 사회제도의 일환으로 보고 현실적인 제반조건을 고려한 실현가능한 대안선택에 비중을 두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는 듯 하다.

입시제도의 개선은 교육적 이론에만 집착하여 이루어질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되지만 또 현실의 조건이나 사회 여론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서도 안된다고 본다. 이 두가지 시각이 한 쪽에서는 이상과 또 한쪽에서는 현실을 중시하면서 적절히 긴장된 조화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본다. 이러한 시각에서 현행 대학입시제도는 다음의 세가지 문제를 고려하는 방향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대학의 자율성 신장, 사회정의의 실현, 선발방법의 합리화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大學의 自律性을 伸張하는 방향에서 개선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의 대학입시제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는 각 대학이 당해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대학이 주체적 역할,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제도적 장치와 그에 대한 뿌리 깊은 저항감을 들 수 있다.

어떤 형태의 조직체이건 그 조직체를 유지·발전시키고, 그 조직체의 생존과 필수적으로 직결되게 마련인 요구의 하나가 그 조직체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선발, 훈련, 배치하는 일이다. 대학이라는 조직체도 이 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더욱이 자유와 민주의 개념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개방사회, 자유사회, 경쟁사회에서는 이러한 요구가 조직체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실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조직체의 생존, 유지,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원리는 정치 집단, 경제 활동을 위한 기업체에도 적용되어야 하지만, 대학이라는 조직체에도 마땅히 적용되어야 할 원칙이다.

둘째, 대학에서 신입생을 선발하는 과정이 社會正義의 實現을 최대한으로 실현하려는 방향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문제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어야 마땅한 것인가를 명확히 제시하기는 어렵다. 로울스(John Rawls)가 제안하는 정의론의 핵심적인 사상인 配分的 正義는 각자가 자신의 '應分の 몫(deserts)'을 누리는 상태를 말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나 제도는 이상사회가 지녀야 할 최소한의 필요조건을 충족시키는 상태를 지칭한다. 만약 한 사회의 구성원이 모두 철저하게 이타적이거나 철저하게 이기적인 경우, 이같은 배분적 정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한 사회가 개인이 원하는 것을 고루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풍요하거나, 아무 것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결핍되어 있다면 이 또한 배분적 정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은 바로 '대학 입시'라는 교육 제도, 사회적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대학입시 제도의 선발 과정이 전통적으로 중요시 했던 準據는 결과에 치우쳐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학업 성취의 總 決算의 指標로서 학력고사 성적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그 밑에 능력과 노력이라는 두가지 요소가 복합되어 있다. 능력이라는 개념은 대개의 경우 이미 주어진 조건이거나 적어도 그 배경에는 가정적·사회적 불공정의 집약체로서 형성된 요소가 도사리고 있다. 또한 노력이라는 기준 역시 극히 주관적일 뿐 아니라 이 또한 사회적 불공정의 결과가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 못지않게 과정과 절차에서의 정의를 정의 실현의 규범적 준거로 함께 채택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내신제도는 이같은 의미에서 사회정의 실현의 한가지 수단이며,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정의 실현의 규범으로 채택되어야 마땅하다. 각 학생이 어차피 피할 도리가 없는 지역, 학교, 성별에 관계없이 그에 상응하는 평가를 해주려는 노력은 이미 외국의 대학 입시에서도 '추천서'라는 것이 얼마나 큰 비중을 갖고 있는가를 보면 명백해 진다. 그러나 우리의 내신제도는 그 제도 자체에 문제점이 있기보다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고, 이 점은 동시에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해야 할 것이다.

셋째, 選拔方法 및 過程의 合理化를 시도해야 한다. '94년도 대학 입시제도에서 채택하기로 되어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내신제도, 대학별 고사, 지원방법 등에서 아직도 합리성이라는 기준에 비추어 보면, 결함이 많아 보인다. 예컨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타당성과 신뢰성, 내신 성적 산출의 합리성, 대학별 고사의 타당성과 신뢰성 등에 대한 문제는 다시 한번 재검토 되어야 한다.

위에 제시한 세 가지 준거를 동시에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이상적인 대학입시제도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신화의 현실화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준거는 조화 속에 응축시킬 수 있는 속성이기보다 서로 갈등을 빚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한쪽의 준거를 극대화시키면 다른 한쪽의 준거는 극소화되거나 위축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대학입시제도의 실현은 실제로 이 세 가지 준거의 '열린 대화'를 통해 성취되어야 하는 것이 현실적 요구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최대한 수렴하는 방향에서 몇가지

대안을 제시해 본다.

1. '94학년도 대학입시제도의 기본골격

'94학년도 대학입시제도의 기본골격은 ① 고교 내신성적 40% 이상 반영(필수사항) ② 대학수학능력시험 ③ 대학별고사 성적(계열별, 학과별 특성을 고려한 3과목 이내)의 세가지 査定準據에 의한다는 조건 속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전체적 구조로 보면 비교적 국가, 대학, 고등학교의 현실적 요구가 적절히 긴장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제도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의 학생선발에서의 自律性 신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고교 내신성적의 반영비율 결정과 의무적 반영은 劃一性의 강요로 해석할 가능성이 많다. 각 대학에서 이 세 가지 査定準據를 어떻게 반영하며, 어느 정도 반영하느냐는 것은 완전히 대학의 독자적 의사 결정에 맡기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어느 대학에서는 이 세 가지 고사의 결과를 모두 적절한 비율로 반영할 수도 있을 것이며, 또 어느 대학에서는 본고사의 성적 결과만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대학에서는 학력고사 성적과 본고사만의 배분에 의해 학생을 선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갖는 특징은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에 필요로 하는 가장 타당하고 신뢰스러운 정보를 모두 제공한다는 데 있으며, 이같이 주어지는 정보를 어떻게 또 얼마나 학생 선발에 반영하느냐는 것은 전적으로 대학의 자율적 결정에 맡기는 입장이다.

이러한 제도가 채택되면 각 대학마다 다양한 선발 방식이 채택되어 표면적으로는 혼란스러워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劃一性보다는 多樣性이 민주사회, 개방사회의 특징이라는 것을 수락한다면 이는 권장되어야 할 현상이지 통제되어야 할 현상은 아니라고 본다. 또한 이러한 제도는 결국 대학 사이에 선의의 경쟁 의식을 조성하고, 그것이 곧 대학 발전과 대학의 개성을 신장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동안 대학은 입학에서 졸업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획일적 제도의 우산 아래에서 키 큰 대학도 키 작은 대학도 존재하지 않는 형태로 발전되어 왔고, 그러한 결과는 모두가 개성없는 대학으로 발전되어 온 것 같다. 이같은 현상은 비단 대학입시제도나 졸업제도에 국한된 현상은 아니며, 좀 더 넓게는 대학 운영 전반에 걸쳐 퍼져 있는 他律의 支配原則 때문에 파생된 문제로 보여진다.

2. 大學修學能力試驗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학생선발에서 公共性과 客觀性이 높은 전형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統

合教科的 소재를 대상으로 고등정신능력을 측정하는 발전된 학력고사' 라고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이 시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직도 명확한 개념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혹자는 미국의 SAT와 같은 학업적성검사로 이해하고 있는가 하면, 혹자는 ACT와 같은 학력고사로 이해하고 있기도 하고, 또 혹자는 SAT와 ACT의 중간쯤에 해당하는 성격의 검사로 이해하고 있기도 하다.

필자는 이 논고를 통해 비교적 자유로운 입장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발전된 학력고사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SAT 보다는 ACT에 가까운 시험으로, 그 개념을 분명히 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개념규정에서 혼란을 초래했던 '統合教科的 소재' 라는 개념도 반드시 제한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고등정신능력 중심, 사고력 중심의 정신능력을 측정한다는 개념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고등학교 현장교육을 보다 質 높은 교육, 교육과정의 본질에 충실한 수업으로 이끌기 위한 교육적 기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관련하여 현재 언어영역, 수리·탐구영역, 외국어(영어)의 3개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영역도 언어영역, 수리영역, 사회탐구영역, 과학탐구영역, 영어영역의 5개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3개 영역구성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영역이 수리·탐구영역이다. 이 속에는 '한 지붕 세 가족' 처럼 수리, 사회탐구, 과학탐구가 함께 화학적 반응의 통합없이 물리적 혼합으로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정신능력이나 내용도 상당한 수준 이질적인 것이 섞여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만약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발전된 학력고사' 로 전환한다면 영역 결정에서도 대담한 변신이 있어야 할 것이다.

3. 內申制度

대학 입학제도의 전형기준의 하나로 내신제도를 도입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한 독특한 사회적 여건, 교육적 여건(예컨대 과열 과외수업의 폐단,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요구 등) 때문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제도이기도 하다.

그동안 내신제도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에서 찬반, 호응과 비판이 잇달리는 양극화현상을 보여왔다. 이 제도는 단지 학생의 고교 교육과정 성취도를 대학입학 전형기준의 일부분으로 반영한다는 단순한 문제로 부각될 개연성이 있는 문제이다. 내신제도는 그것을 각 대학이 입학 전형의 중요한 한가지 정보원으로 이용한다는 입시제도의 구조속에서 보면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현행 내신 성적의 산출 방법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최대한 보완·수정하는 방향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는 강력하다. 예컨대 내신 등급의 조정, 학과 점수의 총점과 내신 등급의 불일치 현상 등은 좀더 심층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역간·학교간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내신성적제도는 불합리하다는 견해는 내신제도 자체가 상정하고 있는 교육적 및 사회적 대전제를 부인하는 발상이며, 이는 곧 사회정의의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상이라고 할 것이다. 각 대학은 오히려 이같은 내신자료를 어떻게, 어느 정도 이용하느냐에 의해 각 대학이 원하는 자율성, 독자성, 개성을 신장시키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으로 본다.

4. 大學別考査

대학의 학생선발권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독자성, 다양성을 신장하기 위해 도입한 대학별고사는 국가에서 과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서로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지원하는 방향에서 그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전국의 입학지원자 전원을 假想敵 대상으로 한 검사이기 때문에 어차피 비교적 넓은 범위에 걸친 일반적 학업성취 수준을 측정하기 마련이며, 또한 多衆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차피 能率性과 經濟性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기 때문에 시험의 형식도 선택형, 객관형 문항으로 구성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대학별고사는 이에 대한 보완적 성격을 강조하여 대학의 특정 '소계열' 혹은 특정 '학과'의 특성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학과목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합리적 판단이 전제되어야 한다. 예컨대 '물리학과'의 경우 수학II, 물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이고 '생물학과'의 경우에는 생물, 화학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각 대학이 '94학년도 입시요강에 발표한 대학별고사가 학과 및 계열에 상관없이 거의 국어, 영어, 수학의 세 과목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은 대학의 행정 편의주의이거나 대학 利己主義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다. 국·영·수 위주의 이같은 대학별고사과목의 결정때문에 벌써 고등학교 교육은 국·영·수 중심으로 跛行的으로 실시되고 있다. 또한 이 세 과목을 위한 개별 및 집단과의 및 학과과의가 극심해져 가고 있는 현상은 1970년대에 '亡國病 課外'라는 사회적 지탄과 비난 때문에 '80년 7.30 교육개혁조치가 취해졌던 경험을 되새길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학인은 자유롭고 자율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자유와 자율도 냉철한 이성애 더한 합리적 판단에 근거할 때만이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에 겸허해야 할 것이다.

5. 面接考査

현재 각 대학에서는 대단히 형식적인 면접고사를 치르고 있긴 하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것이 대학입학 선발에서의 사정자료로 이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여기에서 제안하는 면접고사는 본격적이며 본질에 충실한 면접고사를 시행함으로써 그 결과를 입학 사정의 자료로 활용하자는 데 있다. 이 면접고사는 지원하는 각 학과의 교과내용에 대한 사전 지식 및 적성·태도·가치관 등을 측정·평가하는 형태로 구성하고 각 학과의 교수가 직접 면접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한다. 최근 몇년 사이에 몇개 대학이 이같은 방법에 의한 면접고사를 실시했는데, 그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적어도 중요한 평가 자료가 된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면접고사는 그것을 학문적 성취가능성의 측정 자료로 이용한다는 뜻도 있지만, 그보다는 교육적 차원의 시각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각 학과나 학문 분야에 지원하는 학생의 태도가 보다 진지해 질 수 있다. 또한 최근 몇년간의 사회적·정치적 변동과 풍토의 영향 때문에 거의 不限點에 이른 대학교수의 교권 확립이라는 차원에서도 이 제도는 계속 권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기업체나 회사에 취직할 때의 취직 시험에서도 면접에 의한 판정이 대단히 중요한 사정 정보로 이용되는 데, 가장 교육적이어야 할 대학이 이 제도의 활용을 도외시 한다는 것은 교육적 책무의 유기라고 해야 할 것이다.

VI. 맺 음 말

반복해서 말하지만 대학입시 제도에 관한한 이상적 대안이라는 신화는 존재할 수 없다. 오직 있다고 하면 현실에서 발생한 충격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 대안인가하는 점이다. '94학년도 대학입시제도에 관한 필자의 대안도 한 개의 次善的 代案일 뿐이다. 그러나 어떠한 제도이건 그 제도가 가장 가치를 두는 몇가지 특징은 있기 마련이다. 위에서 제시한 대안은 大學의 自律性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社會正義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입시제도를 제안하고 있다. 이 점에서는 비교적 공감대가 높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의 자유나 자율성은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경우에 주어지는 자격과 권리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방종과 무질서의 逆機能으로 작용하여 끝내는 또 다른 새로운 규제와 타율을 자초하게 될 수도 있음을 우리 대학인 스스로가 같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教育改革審議會, (1987), 教育改革綜合構想: 最終報告書(II), 교육개혁심의회.
- 教育部, (1991), 大學入學試驗制度 改善案.
- 金宗西 외, (1980), 大學入試制度研究, 선진학술제도 조사연구보고서, 문교부.
- 金宗西 康宇哲 鄭元植 黃禎奎 邊昌鎭, (1984), 大學入試制度研究, 문교부.
- 朴道淳 張錫祐 姜武燮 辛東鎭, (1989), 大學入試制度 改善方案 研究,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中央大學校한국교육문제연구소, (1991), 새 대학입시제도에 따른 대학별 본고사의 시행방안
- 黃禎奎, (1988), 大學教育適性試驗 개발을 위한 基礎研究, 중앙교육평가원.
- 황정규, (1989), 대학입시정책: 그 이상과 현실, 大學教育, 33호, 18-23.

<부 록>

대학입시제도의 변천

*1980. 7. 30 교육개혁 이전

종 류	제도내용	시행결과
· 대학별 단독 시험제 (1945-1953)	· 대학별로 입학시험 실시 (선지원)	· 6.25 동란 후 정·소집 보류 특혜부여로 대학부정 입학문제 야기
· 대학입학 연합고사제 (1954)	· 대학입학연합고사와 대학별 본고사 병과 전형 (선시험)	· 대학입시 이중부담과 정치적 이유로 합격자 발표후 무효화, 대학별 본고사 성적만으로 선발
· 대학별 단독시험제 (1956-1961)	· 고등학교 내신성적에 의한 무 시험 전형과 · 대학별 본고사 및 고등학교 내신성적 병과전형 · 입학정원 10%는 무시험 전형 · 입학정원 90%는 고등학교 내 신성적 30% 반영하여 전형 · 여성진학기회 확대와 군대 제 대자 우대책으로 입학 정원 10% 초과 모집 허용 (선지원)	· 대학의 입학정원 초과모집으로 학사부조리 발생
·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사제 (1962-1963)	· 1962학년도: 국가고시만으로 전형 · 1963학년도: 국가고시와 대학 본고사 병과전형 · 국가고사는 전국대학 입학 정 원의 100%만 합격 (선시험)	· 학과별사정으로 입학정원 10% 내의 우수한 성적 합격 자가 탈락한 반면, · 비인기대학 및 학과의 미달 사태 발생(혼란)
· 대학별 단독시험제 (1964-1968)	· 대학별 입학시험 실시 (선지원)	· 대학의 학생 정원초과모집 · 대학간 격차심화로 질저하 ·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 실업자 증가
· 대학입학예비고사와 대학별 본고사 병과 (1969-1980)	· 1969-1972 대학입학예비고사 합격자에게 대학본고사 응시 자격 부여 · 1973-1980 대학입학예비고사 성적을 대학별 전형에 30% 반영 (선시험)	· 과열과의 발생 · 교권의 실추 · 빈부의 차에 의한 국민간의 위화감 조성 · 입시의 이중부담

종 류	제도내용	시행결과
· 대학입학예비고사와 고등학교 내신성적 반영 병과(1981)	· 대학별 본고사 폐지 · 대학입학 예비고사 성적 50% 이상과 고교 내신성적 20% 이상 전형 (선시험)	· 무제한 지원, 성적공개 등 시행상 문제점 대두→입시혼란 · 대학의 입시선발 기능 미약 · 미달사태 발생, 과열경쟁으로 탈락
· 대학입학 학력고사와 고등학교 내신성적 병과 (1982-1985)	· 대학입학 학력고사 성적 50% 이상과 고등학교 내신성적 30% 이상 병과 전형 · 1985학년도 고등학교 내신 성적등급간 점수차이 조정 (2.7점-2점) · 고사 과목수 1982-83: 14 1984: 15 1985 { 인문: 16 자연: 15 (선시험)	· 대학의 입학선발 기능 미약 · 접수 마감시간 혼란잔재 · 고등학교 내신성적 불만 · 체력검사 폐지 대두
· 대학입학 학력고사와 고등학교 내신성적 및 논술고사 병과(1986)	· 대학별 논술고사 실시 (10% 범위내 성적반영) · 고등학교 내신성적 학년별 성적 반영 조정 · 기타 1985학년도와 동일 · 고사 과목수 { 인문: 17 자연: 16(선시험)	· 논술고사 기능 미흡 · 미달사태 발생 (편중된 지원현상) · 합격위주의 지원(적성 무시)
· 대학입학 학력고사와 고교 내신성적 및 논술고사 병과 (1987)	· 대학입학 학력고사 성적 50% 이상과 고교 내신성적 40% 이상 및 논술고사 성적 10% 병과 전형(선시험)	·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 미흡 · 눈치지원 등 접수마감 시간 혼란 · 선시험 후시험제로 인한 적성 무시 지원
· 대학입학 학력고사와 고등학교 내신성적 병과(1988)	· 선지원 후시험 · 고교 내신성적 30%이상 의무화 · 대입학력 고사 대학별 실시 (중앙교육 평가원 출제) · 면접고사 점수화, 과목별 가중치 적용	· 접수창구혼란 극소화 · 적성지원 ·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 신장 · 예·체능계학과와 고등학교 내신성적 반영비율 하향조정 요망(실기비중 상향조정)